

종합·지방자치

정부, 지방 국고보조사업 대폭 축소

복지비 마련 허리띠 조르기... 광주·전남 불똥?

88고속도로 확장 등 지연 우려

정부가 지방 국고보조사업을 대폭 줄이고,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를 4년간 12조원 감축해 복지재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등 광주·전남 내 시급한 해결과제인 SOC 사업들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모 각 자치단체의 예산 중 경상경비와 행사·축제경비 5% 이상 의무적으로 절감토록 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더디게 진행되거나 신규사업인 88고속도로 확장공사와 동광주~광산IC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경전선(광주~순천간) 전철화

는 부처별로 7~14%의 세출구조조정 계획을 받은 결과다. 정부의 지방 국고보조사업은 2003년 533개에서 2004년 359개로 줄었으나 MB정권을 거치면서 다시 불어났다. 작년 말 985개로 8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규모도 지방예산 기준 2004년 18조 8천693억원에서 올해 55조662억원으로 급증했다. 국가보조사업의 규모가 늘어나는 주요인은 고령화와 국가의 복지사업 확대, 영유아 보육사업만 하더라도 2008년 1조9030억원에서 올해 7조944억원으로 3.7배나 늘었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방비 부담액이 전년보다 각각 486억과 905억원이 증가한 상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국고보조사업은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게 많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되 제도 자체를 손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행부는 이외에 최근 151조원에 달하는 지방예산 중 경상경비와 행사·축제경비를 예초 예산 대비 5% 이상 의무적으로 절감하고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세입을 확충할 계획이다.

비과세 감면비율을 22.5%에서 국제수준인 15%로 줄여 지방세수를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국토부는 앞으로 4년간 도로, 철도 등 SOC 예산 11조8000억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대신 도시재생 등 국민체감형 SOC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각 부처와 협의해 세출구조조정계획을 구체화한 뒤 당정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 공약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를 완성,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순천만정원박람회 개막 한달 연일 구름관중 '흥행 성공' 예감

20일 개장 한 달을 맞아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연일 구름관중이 몰리고 있다. 석가탄신일이 지난 17일에는 10만 명 가까이 몰렸지만, 박람회 측이 큰 문제 없이 소화해내면서 당초 목표 관객 400만명을 넘어 6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국제정원박람회인 데다 세계정원 11곳, 참여정원 61곳, 테마정원 11곳 등 83곳의 정원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2.6km 갯벌, 5.4km 갈대밭을 가진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은 매년 전국 각지에서 200만 명이 찾는 매력적인 콘텐츠로, 순천만을 찾은 관람객들이 정원박람회장으로 발길을 옮기면서 시너지 효과 발생하고 있다.

석탄일 10만명... 총 150만명 다녀가 관객 45% 외지인 '국민박람회' 자리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첫날부터 인파가 물리기 시작, 지난 15일 100만을 돌파한 뒤 지난 17일~19일 3일 연휴엔 30만명에 가까운 특수를 누리면서 한 달 누적 인파가 150만명에 육박했다. 하루 평균 4만명이 찾고 있을 정도로 박람회 '성공'의 중요한 척도인 관객 동원 부문에서는 일단 순조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도 발생하고 있다. 박람회 주변 8600여대, 인근에 5400여대의 주차공간을 갖추고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 교통·숙박 대책 등도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10월20일 박람회 종료 때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은 만큼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사전 차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초화류나 잔디류 등의 전시물 관리, 오랜 시간 걸을 수밖에 없는 박람회 구조상 노약자 및 장애인 관련 대책, 해설이나 통역 등 안내 대책, 관람객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숙박 관련 프로그램 보완 등이 그것이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문제도 순천시가 고민해야 할 과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지난 1988년 5월 평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당총재로 복귀한 김대중 총재와 박영숙 부총재가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여성운동계 代母' 박영숙 전 이사장 별세

부친경찰 성고문 진상규명 주도적 역할

평양출신, 전남여고 졸업

한국 여성운동계의 '대모(代母)'로 불리는 박영숙 전 평화민주당 총재 권한대행이 17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1세.

박 전 이사장은 2012년 초 설립된 안철수재단 이사장(현 동그라미 재단)으로 선임됐지만 암 투병 탓에 지난 3월 7일 사임, 치료를 받아왔다. 평화출신인 박 전 대행은 YWCA연합회 총무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을 지내는 등 평생 여성운동에 헌신하며 큰 족적을 남겼다.

특히 지난 1986년 전두환정권의 여성인권 유린을 단적으로 드러낸 부친경찰서 성고문 사건 때 여성단체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8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의 TV찬조연설자로 나와 이름을 알렸으며, 이듬해 13대 총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평민당의 전국구 1번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정치권의 격랑 속에 평민당 부총재 및 총재권한대행,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시절에는 '100인 기부 릴레이'를 주도하는 등 기부문화의 전도사로 활동했다. 빈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아시아 위민 브리지 두런두런'을 창립했으며, 현재까지 장학재단 '살림이' 이사장을 맡아오는 등 사회공헌에도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996년 별세한 민중신학자이자 인권운동가였던 안병무 전 한국신학대 교수가 배우자였다.

빈소는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0일 오전 7시 30분, 장지는 마석 모란공원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남덕우 전 총리가 지난 2012년 2월 서울 상암동에 문을 연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개관식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앉아 있다.

'한강의 기적' 이끈 남덕우 전 총리 별세

70년대 경제개발 주도 '근혜노믹스' 영향

1980년대 무역입국 초석 다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을 이끈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9시55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강대 경제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재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뒤 1974~1978년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내며 한국의 고속성장을 이끌었다.

박 전 대통령은 남 전 총리가 서강대 교수 시절 출간한 '가력론'을 보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상당히 비판적인데 어디 한 번 직접 말해서 해 보라"며 그를 전격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전 총리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박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정책을 주도한 '서강학과'의 시조이자 대부로 꼽힌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인 1980~1982년

제14대 국무총리를 지낸 뒤 1983년부터 1991년까지 18~20대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재직했다. 이때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무역센터, 코엑스 전시장 등 무역인프라 구축을 주도하며 무역입국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 전 총리는 관계를 떠난 이후에도 경제계의 원로로서 정치권과도 인연을 이어가며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유력 대권 주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자문단 좌장직을 맡아 '근혜노믹스' 입안에 영향을 미쳤다. 수년간 전립선암을 앓아온 남 전 총리는 최근 노환이 겹쳐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고 지난 6일 서울 강남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이며 22일 영결식이 거행된 뒤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北 단거리 발사체 이틀 연속 동해 발사

18일 3발 이어 19일 1발 발사

KN-02 또는 300mm 방사포 추정

북한이 18~19일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발사체(유도탄)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19일 "북한이 어제 이어 오늘 오후에도 동해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에도 오전 8~11시에 2발, 오후 2~3시에 1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 북동쪽으로 발사했다.

군 당국은 이번 단거리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인 KN-02 계열이거나 북한이 개발 중인 300mm 이상 방사포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3차 핵실험 직전인 2월 1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3월15일에도 KN-02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틀 연속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단거리 유도탄 발사를 비난하며 도발행동 중단과 남북대화 수용을 촉구했다.

미국은 18일(현지시간) 케이틀린 헤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의 성명에서 "북한은 위협과 도발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는 고립을 심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삼희공인중개사

모든부동산 급매매

급매처분상담 경매 압류 미준공건물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부동산 말소와 동시에 일괄매입

매수자 상담환영

법률/금융상담 동구 불로동 삼희빌딩 3층 234-1199 / 010-8730-3340 신리할 안내지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신한공인중개사

신속 원룸 매매 전문

- 북구 전대 상대·농대 1분, 신축 4층, 룬,147개(주책있음) 월수익 500만, 매가 5억 9천만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북구 전대 정문 1분, 신축 4층, 룬 167개 (주책 40평) 월수익 750만, 매가 8억 4천만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북구 전대 정문 1분, 신축 4층, 룬 217개 (주책전환) 월수익 750만, 매가 8억 8천만 (엘리베이터,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서구 쌍촌동 운현역 2분, 신축 3층, 룬 87개(주책있음) 월수익 280만, 매가 5억 2천(보 2천, 용 1억 2천)
서구 쌍촌동 신축 4층, 원·투룸 14개 (주책있음) 매가 6억 9천만
북구 삼각동 신축 4층, 원·투룸 11개 (주책있음) 코너, 최고 위치 월수익 330만 (보 2500만, 용 1억 2천) 매가16억5천만

상가매매

- 상가가 임대 1층, 수원지구, 대방 5차 후문 59㎡ (보3천,월1300만) 모든업종가능
상가가 임대 3층, 수원지구, 모이엘가APT 150㎡ (보 1천, 월 90만) 즉시입주, 시바없음
상가매매 1층, 수원지구 롯데마트, 영화관 300세대 대방 5차 APT 후문 59㎡ 매가 3억 6천, 임대중 (보 3천, 월 150만)
상가가 매매 1층, 수원지구 신현은행 뒤 300세대, 모이엘가 APT 후문 3층 280㎡ 매가 3억 2천 (보 2천만, 월 200만, 용 2억 5천만) 학원, 병원, 사무실적합
상가매매 1층 4칸, 수원지구 대방 1차 APT정문 대지 304㎡ 매가 6억 3천 (보 8천만, 월 360만, 용 2억 5천만)
상가매매 1층, 수원지구 대성베르텔 대지 304㎡ 매가 7억 (보 1억 3천만, 용 4억)

독서실 임대

수원지구 3천세대 모이엘가APT앞 2층, 총 91석 신축, 최신식 시설, 최고위치 (보 5천만, 월 250만, 시바없음)

062)527-7600 H.P. 010-6670-98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수완동(국민은행 LG전자빌)

현대공인중개사

급한 매물 단시일내 신속중개 -토지 건물

토지매매

- 소재지: 광안구 산정동
면적: 14,172㎡ (구 4,287평)
용도지역: 자연녹지,
지목: 잡종지
입지조건: 대형차량진입 가능
허용용도: 공장, 창고, 병원 종교집회장(교회, 성당)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차장) 고물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복지시설(노인, 사회 근로)

신축 상가 건물 임대

- 5층 건물 - 3면이 도로
9월 준공 예정
상무지구 구영 오피스텔과 국민은행 사이
관장 용도: 학원, 병원, 사무실, 음식점, 커피전문점, 자동차 전시장, 사무실, 금융기관, 보험회사, 편의점, 기타업종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명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가 함께합니다

- 상가건물
▶첨단 중심상권 2층건물 매매 18억(보1.5억 월910만 수익)
▶월산동 일반상업지역 6층건물 매 14.7억
▶중앙동 아파트 2층상가 124㎡(38평) 매매 2.4억

대지/전답

- ▶담양군 금성면 토지 5,500㎡(1.670평) 개발허가,기반 시설 완비
▶나주시 평산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4,150평) 매매가 협의
▶장성군 삼계면 대지 외 4130㎡(1,250평) 1.7억
▶장흥군 장평면 전원주택(680㎡, 전13,165㎡ 포함) 3.5억
▶신창동 창고용지(생산녹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수원지구 원룸부지 323㎡(98평)

수익형 구분점포

- ▶첨단 메인대로면 구분점포 150㎡ 매매8.5억
▶첨단 중심대로면 복층 가능 1.2층 점포 400㎡, 710㎡ 임대
▶첨단 중심대로면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보10억 월 1,200만
▶첨단 메인상권 1층 구분상가 370㎡ 매매 35억(임대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드립니다.
광주 전남전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973-0045 010-5536-0382

중앙공인중개사

병원건물 임대

- 운암동 아파트 밀집지역 (금호,주공3단지,미라보 남양휴먼 우미 일신아파트 등 약 5,500세대) 병,의원 개원 하실분 모십니다. (0)비이후과 소아과 안과

대지,전답

- 서구 세하동 2차선 도로점 주거지역 답 12,522㎡(763평) 매매가 평당150만원 (물류창고 공장 적합)

전원주택

-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 한채골 입구 저수지 위 전망 아주 좋은 대지 1,333㎡(약403평) 매매가 평당 65만원

총장로에 대형 건물 및 대형 매장 필요 하신 분 상담 환영합니다.

062-374-5945 010-3162-4989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7층) 보.5억4천,월3500만 매4억원
상무지구 중심상업지(5층) 보3억, 월2500만원 매39억원
상무지구 중심상업지(3층) 보3억원, 월1200만원 매23억원
상무지구 중심상업지(5층) 보5억, 월4100만원 매80억원
광안구 수원지구(5층) 보2억원, 월1390만 매27억원
광안구 신창동(5층) 보2억,월1040만 매19억원

대지/답

- 금호동 계획도로점 자연녹지 3,400㎡ 매31억원 (병원,시육,점례에적합)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매 36억원(병원,시육)
상무지구 중심상업지408㎡ 매 8억5천(식당,유족노래방)
치평동 광산도로 395㎡ 매14억원(병원,시육,전시장)
마북동생산녹지 도로점 895㎡ 매가11억원(식당,시육)

- 쌍촌동 운현역부근 상업지 845㎡ 매275억 (시육,전시장,병원,도시형)
세종시 중심상업지 1715㎡ 매가162억원(상1분양투자준적)
상가건물, 나대지 급구

062-381-6001 010-3753-0033